

VI. 尖端 産業 動靜

美日 반도체 新협정을 둘러싼 교섭에서 兩國은 과거 왜곡된 통상정책을 지양하고,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

美日 반도체 협상 再開

○ 협정 목표 완료

- 10년전에 체결된 美日 반도체 협정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음

- ① 일본 반도체 시장 전면 개방
- ② 兩國 기업의 긴밀한 협조

③ 미국을 비롯한 외국 제품의 일본 시장 진입 보장

- 상기의 협정 목표는 이미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일본 기업들이 경영 합리성에 입각하여 우수한 부품
- 제품은 국내외를 불문하고 조달한다는 자세가 정착되었음

→ PC나 가전제품의 심장부인 IC를 소량 해외에서 수입·조달하는 기업이 속출하고 있음

○ 新협정의 기본 원칙

- 양국 정부는 政治 論理가 지배했던 과거의 통상정책을 반성한 후에, 현재 교섭중인 新협정에서는 經濟 論理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존중되어야 함

① 美日 二國間에 일본시장의 반도체 需給을 결정하는 것은 자유무역정신에 위배됨

- 일본시장에 관심을 갖는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이 미국에 주어지지 않음

→ EU를 포함한 다국간 논의가 필요

② 政府의 역할은 자유로운 去來를 보장하는 환경정비에 한정

- 기업에 구입목표를 제시하거나 구입을 강요할 수 없음
- 규제완화에 양국 정부가 합의했음에도 市場의 一定 Share 보장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지양되어야 함

③ 競爭 原理가 준수되어야 함

- 자유로운 경쟁의 결과, 外製의 Share가 줄어든다면 이는 외국 기업 책임 (「日本經濟新聞」, 7. 18)

다시 주목받는 ADSL

80년대 중반 ADSL 모뎀이 개발되었으나 고가격으로 인해 큰 호응을 얻지 못함

- ADSL(Asymmetric Digital Subscriber Line)의 개발
 - 전화 회사들은 멀티미디어 시대에 대응하여 기존의 銅 케이블로도 가능한 고속·고품질의 통신 기술을 추구함
 - 이러한 기능을 해줄 수 있는 ADSL모뎀이 벨, BT 등 주요 통신회사에 의해 1987년에 개발되었음
 - 그러나 당시에는 가격에 대비한 효용이 소비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함

통신시장의 경쟁 확대와 인터넷 보급의 확산으로 ADSL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음

- 새로운 상황 변화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ADSL
 - 通信市場 構造 改編: CATV 회사의 통신시장 참여
 - 기존의 서비스 수준으로는 光케이블망을 근간으로 서비스를 하는 CATV회사와 경쟁할 수 없음
 - 인터넷의 擴散
 - 전화의 수입 감소를 보전할 기회를 전화회사에 제공함
 - 소비자의 입장에서 고속 접속에 의한 비용 절약이 경제적이란, 고가 기기의 구입 이유를 제공함

통신기기·망간의 전송속도 차이(2 메가바이트 다운時)				
14400 모뎀	28800 모뎀	ISDN	ADSL	케이블 모뎀
18.5분	9.3분	2.1분	10.7초	1.6초

통신거리에 따르는 장애의 극복과 기기의 가격 인하가 선결 과제임

- ADSL이 극복해야 할 課題
 - 技術的 弱點: 통신거리에 따라 속도와 품질이 크게 좌우
 - 전화국과의 거리가 3.7km인 경우 전송 속도는 초당 약 6 메가바이트이나 1.7km만 떨어져도 1.5 메가바이트로 떨어짐
 - 해결방안으로 무선통신이나 위성통신과의 연계를 모색중임
 - 經濟的 弱點: 통신기기의 고가격
 - 최근의 ADSL모뎀 가격은 약 1,500~3,000 달러 수준임
 - 기기가 비싼 것은 고속에 내장된 칩의 가격 때문인데, 점차 칩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낙관적인 상황임 (ECONOMIST, 1996. 7. 13)